

[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

## 직무 스트레스와 체지방지수의 상호작용이 과식 행동에 미치는 효과

Interactive effects of job stress and body mass index on over-eating

Takaki, J.<sup>1</sup> · Minoura, A.<sup>1</sup> · Irimajiri, H.<sup>2</sup> · Hayama, A.<sup>2</sup> ·  
Hibino, Y.<sup>3</sup> · Kanbara, S.<sup>4</sup> · Sakano, N.<sup>1</sup> · Ogino, K.

<sup>1</sup>Department of Public Health, Okayam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Dentistry and Pharmaceutical Sciences, <sup>2</sup>Yanagawa Clinic, <sup>3</sup>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Preventiv eMedicine,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Kanazawa University and <sup>4</sup>University of KinDaiHimeji, School of Nursing, Japan  
/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52, 63.

**목적** : 최근 Kivimake 등이 보고한 Whitehall II 코호트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은 마른 남성의 체중감소와 비만 남성의 체중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여성에게 이러한 효과에 대한 일치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의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관련된 기전이 과식과 같은 행동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방법** : 자가보고식 설문이 4개 단체의 일본 근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며 총 607명이 회신하였다(60.5%). 설문지는 인구학적 특성, 폭식증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 -EZ), 노력-보상 불균형 척도(Effort-Reward Imbalance Questionnaire)를 포함하였다. 체지방지수는 신체검진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선형적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체지방 지수와 과식의 관련성 분석에서 체지방지수 단일분석과 나이를 통제한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높은 외적 노력 (업무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는 높은 체질량 지수를 가진 남성의 과식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인 반면 높은 재정적 보상 점수는 높은 체질량 지수를 가진 남성의 과식 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여성들에게는 상호작용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이 높은 체지방지수를 가진 남성의 과식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Kivimake 등이 제시한 상호작용 기전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